

16세기 동호독서당의 복원 추정과 건축적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Dongho Dokseodang in the late 16th Century and it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배 창 현* 전 봉 희** 정 기 철***
Bae, Chang-Hyun Jeon, BongHee Jung, Ghi-Ch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onstruct the Dongho Dokseodang and to examine its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the mid-Joseon period. This institution was established for the Sagadoksseo(賜暇讀書), which is similar to the sabbatical year today. In 1517, it was first constructed and such buildings as the Jeongdang(正堂), Buok(附屋), Namru(南樓) and Seosangbang(西上房) were built at the time. In 1551, Munhoedang(文會堂) and Hanggak(行閣) were newly added, and in 1587 a new hall was built around a lotus pond. With the Imjin war in 1592, however, all buildings were devastated. There remain primary sources such as paintings and literatures providing the architectural information of the institution at the time. Based on these sources, various scholarly attempts to reconstruct the institution have been made since 2003. In this research, the primary sources and preceding studies will be reviewed to reach a more reasonable reconstruction of the Dongho Dokseodang. In doing so, its important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as well.

키워드 : 독서당(讀書堂),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호당기(湖堂記), 기서당구기(記書堂舊基), 조선중기 건축
Keywords : Dokseodang, Dokseodang Gyehoe-do, Hodang-gi, Giseodang-gugi, architecture of the mid-Joseon period

1. 서 론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은 조선시대 사가독서(賜暇讀書) 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건립된 일종의 관립 연구 시설이다. 사가독서 제도는 1426년(세종 8)부터 문신 중 학재(學才)가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여 개인의 집이나 진관사(津寬寺), 장의사(藏義寺)등에서 공부하게 한 것이 시초로, 세조(世祖)대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1491년(성종 22)에 다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사가독서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된 것은 중종(中宗)대인 1517년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 인근인 두모포(豆毛浦)에 동호독서당이 건립된 것이 처음으로, 이곳을 독서당 또는 호당(湖堂)이라 줄여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황(李滉, 1501-1570)은 이곳에서 「동호독서당매화모춘시개용동과운(東湖讀書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 「망호당심매(望湖堂尋梅)」와 같은 시를 남겼고, 이이(李珣, 1536-1584)는 선조(宣祖)에게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정철(鄭澈, 1536-1593), 유성룡(柳成龍, 1542-1607) 등 조선 중기에 이름을 날린 많은 인물들이 사가독서에 선발되어 이곳 동호독서당에 머무르며 많은 저작을 남겼다. 『국조호당록(國朝湖堂錄)』, 『독서당선생안(讀書堂先生案)』, 『호당선생안(湖堂先生案)』 등에는 독서당을 거쳐 간 인물들의 명단이 전해진다(Lee, 2015).

동호독서당의 건립계획은 1510년(중종 5) 실록에 처음 등장하나, 정작 공사는 처음 계획이 세워진 것보다 5년 후인 1515년(중종10)에 시작되어 1517년(중종 12)봄에 마쳤다.¹⁾ 이후 1551년(명종6)에 문회당(文會堂)이라 칭한 새로운 강학공간과 더불어 행각 등이 추가로 건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30년 후의 기록에는 또다시 신당(新堂)이 등장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²⁾ 그러나 이때의 동호독서당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으로 소실되어 전란 후 인근 군영(軍營)의 건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운영되었다.³⁾ 이후 17세기 중엽에는 다시 호당이 쇠퇴하여 사

* 서울대 대학원 박사수료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park@snu.ac.kr)
*** 캔사스대학교 미술사학과
이 연구는 2012년도 서울대학교 Brain Fusion Program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1)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Jungjong sillok, 中宗實錄) 10卷, 5年(1510 庚午/ 1月 19日(丙子))
弘文館校理洪彦弼, 將大提學意啓曰: “賜暇讀書人員, 寓居淨業院, 似不合. 龍山古基, 傾頽不可改構. 豆毛浦月松庵近地平衍, 有可構處, 木石之輸亦便近, 限日起構, 使之讀書何如?” 傳曰: “可”
2) 2장의 문헌자료 A의 1. 참조
3) Lee sik(李植), Dokseodang Namrugi「讀書堂南樓記」中

가독서의 장소가 없다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을 전후로 새로운 독서당마저 소실된 것으로 생각된다.⁴⁾ 그러나 임란으로 소실되기 전의 동호독서당의 모습이 동시기의 회화와 문헌자료에 남아있어 이들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동호독서당을 기록한 그림은 1531년의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1531, 일본 개인 소장), Figure 1>(이하 ‘1531년 계회도’)와 1570년의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1570, 서울대박물관 소장), Figure 2>(이하 ‘1570년 계회도’)의 총 두 점이 있다. 이중 <1570년 계회도>는 각 건물의 묘사가 자세하고 문헌기록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동호독서당의 복원추정에 많은 참고가 된다.

문헌 기록으로는 국간(菊澗) 윤현(尹鉉, 1514-1578)이 남긴 「호당기(湖堂記, 문헌자료 A)와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남긴 「기서당구기(記書堂舊基, 문헌자료 C), 「독서당남루기(讀書堂南樓記)가 있다. 비록 이식이 남긴 두 자료는 모두 동호독서당이 소실된 이후에 기록된 것이지만, 다른 문헌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참고가 된다. 이 밖에도 『조선왕조실록』이나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의 『견한잡록(遣閑雜錄, 문헌자료 B)』 외에도 독서당을 거쳐 간 인물들의 문집이나 시편 등에서 이곳과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문헌자료 중 윤현의 아들 윤안성(尹安性, 1542-1615)이 1591년에 간행한 『국간집(菊澗集)』에 수록된 「호당기」는 1551년에 이루어진 독서당의 증개축 과정과 이유를 자세히 밝혀 놓아 <1570년 계회도>와 함께 가장 주목되는 자료이다.

동호독서당과 관련된 자료들은 지금 그 실물 유구가 많지 않은 입진왜란 이전의 건축에 대한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가치가 주목되어 왔다. 즉, 관련 자료들을 통해 동호독서당의 모습을 추정해가는 과정은 조선중기 건축의 간접경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이미 여러 선행 연구가 있는데, 허겸은 2003년 <1570년 계회도>를 대상으로 동호독서당의 배치평면도를 처음으로 작성하였고, 윤진영은 2004년 허겸의 안에 윤현의 「호당기」를 보충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김완, 한동수는 2011년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참고하였던 자료들에 「기서당구기」의 내용을 보충하고, 건축적 성격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2014년에는 성동구에서 독서당 건립을 추진하며 만든 독서당 추정도면이 추진경과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문헌기록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 국문학, 서지학 분야에서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중 대표적으로 서범중은 2008년 「독서당선생안」을 통해 동호독서당을 거쳐간 인물과 제도를 정리하였고, 이종묵은 최근 기존 「호당기」 전문 해석과 함께 기존의 해석을 재고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소개한 자료 및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여 16세기 후반의 동호독서당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조선중기 건축의 특징과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동호독서당 사료검토

2.1 문헌기록

1538년 사가독서에 선발된 이래 1556년 무렵까지 두 번의 사가독서를 지내며 독서당에 오랫동안 머무른 윤현은 동호독서당과 관련한 기록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인 1550년대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호당기」에서 동호독서당 건물들의 명칭과 지어진 시기, 규모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이 글에서 건물들에 관한 내용만을 주로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문헌자료 A. 윤현(尹鉉), 『국간집(菊澗集)』, 「호당기(湖堂記)」中 (원문은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

I. 사가독서를 시행한 것은 우리 세종조의 일인데, 성종 계묘년(1483) 용산의 폐사(廢佛寺)를 장소로 삼았지만 명칭은 없었다. ... 을해년(1515) 동호 월송암 서쪽 기슭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정축년(1517) 봄에 공사를 마쳤으며 윤4월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사록(故事錄)에 실려 있고, 늙은 아전 박씨에게 확인한 것도 있다.

II. 신해년(1551) 봄 내가 동료들과 의논하였는데, 상방(上房)은 으스스한 것이 병폐고 남루(南樓)는 행한 것이 병폐이며 동료들이 다 모이자면 방이 적어 나누어 기거해야 하는 병폐가 있었다. 으스스하거나 행한 것을 바꾸어 사계절 늘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 방법을 도모하였다.¹⁾ 어떤 이는 행각을 만들면 예전 담장보다 높아지게 되어 서실(西室)에서 앉아서 조망하기에 방해가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²⁾ 남루(南樓)와 신당(新堂)은 거리는 가깝지만 가기에는 멀다. 맑은 날은 관찰지만 눈비가 오면 통행이 어렵다. 상방의 난간(上房欄干) 아래로 길이 있지만 처마가 낮아 머리가 부딪치게 되니 방해가 된다. 불가불 행각을 만들어 통하게 해야 한다. 부지에는 네 칸을 둘 수 있는데, 누(樓)한 칸을 붙여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하여 정문(正門)을 곁하게 한다.³⁾ 정당(正堂)에서 보자면 조금 좁아 보이지만 벽로(壁路)를 따라 바로 정당에 오를 수 있으니 병폐가 되지는 않는다.⁴⁾ 나머지 세 칸은 낮추어 옛 담장(舊牆)보다 한 자 낮게 하고 밖에 주극(朱戟)을 설치한다. 가운데는 여섯 자 정도의 폭으로 하여 신당(新堂)의 처마 밑에 붙인다. 이 터 상부의 흙을 걷어내고 저면의 바위에 짧은 기둥(短柱)과 작은 주춧돌(小礎)을 놓고 굽은보(曲楸)를 걸어 통행하게 하면 옛 담장보다 3-4척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행각의 높이가 이전과 같더라도 예전 방에서의 시야가 트일 것이다.⁵⁾

III. 정당은 세 칸인데, 그 서북쪽은 판으로 창을 내고 남쪽은 비워두었다. 동남쪽에는 분합(分閣)을 두어 상방(上房)으로 통하게 하였다. ... 정당의 동쪽에는 부옥(附屋) 네 칸이 있는데,⁶⁾ 동쪽으로부터 제 1칸은 집물(什物)을 두고 제 2칸은 온실(溫室)인데 곧 상방(上房)이라 부르는 곳이다. 제 3칸은 장서(藏書)를 두고, 정당에서 가까운 제 4칸은 비워두고 쉼 곳으로 삼았다.⁷⁾ 정당(正堂)과 부옥(附屋) 사이는 반 칸(半間)을 비워 사람이 지나다니도록 했다.⁸⁾ 정당의 서쪽 가까운 곳에는 문이 있는데, 그 아래 방이 세 칸(房三間) 있다. 두 칸은 온돌(溫燥)이고 한 칸은 판을 깔았다.(板鋪) 앞에는 기둥(楹)을 붙였다. 남쪽에는 루 세 칸이 있는데, 남루(南樓)라 부르는 곳이다. 돌방

湖堂燼於倭亂。堂選亦廢。自萬曆戊申。復權寓漢江故軍營爲堂。

4)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Hyojong sillok, 孝宗實錄) 15卷, 6年(1655 乙未/ 10月 8日(戊午)

...而湖堂頽廢。故無賜暇讀書之所...

(堦房) 안이 판을 깔아놓은 곳보다 낮아 신해년(1551) 가을 높였다.⁹ ...행각으로 통하기 위해 벽을 부수고 분합을 달아 지금은 없다. 루 서북쪽에 분합이 있고 그 바깥에 3단의 돌계단(石梯三級)이 있다.¹⁰ 독서당 터는 산기슭에 있어 안에서 보면 남루가 평탄하게 보이지만 밖에서는 높다. 남쪽에 한 자 높이의 옛 난간이 있었지만 뒤로 물리고 더 높였다.¹¹ 서쪽으로는 석양이 강해 자리(簾)를 처마에 대었다.¹² ... 신당(新堂)은 네 칸인데 앞에 퇴기둥(退檻)이 있다. 동쪽은 온실(溫室)이고 서쪽은 서늘한 방(涼房)인데 모두 남북으로 창이 있다.¹³ 가운데 두 칸은 비웠는데 북쪽에는 창, 남쪽에는 분합(分閣)을 달아 추우면 내려서 가리고 더우면 올렸다.¹⁴ ...처마 앞에는 나무로 틀을 만들어 자리(簾席)로 덮어 장대(長竿)로 지탱하여 비바람이 치면 낮게 하고 맑으면 높게 하였다.¹⁵ 앞에는 마당이 있는데 길이는 대여섯 칸이고 너비는 세 칸이다. 마당 동쪽 기슭이 패여 있어 흙을 쌓아 채우자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울타리(籬)를 쳐서 가렸다. 올 3월 보름에 아전들과 상의하여 돌(亂石)을 쌓아 높여 26일 마당과 평평하게 공사를 마쳤다.¹⁶ ... 동쪽에는 허옥(虛屋)을 얹어 상방(上房) 아래로 붙였는데, 세 칸으로 주방(廚), 문(門), 고(庫)이다. 그 밖에 장랑(長廊) 여섯 칸이 있는데, 이청(吏廳), 외동문(外東門), 헛간(虛間)이다.¹⁷ ... 후략

위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사가독서의 역사 및 독서당 연혁에 대한 요약이고, 둘째는 문회당으로 지칭된 신당 및 행각의 증축 이유 및 과정에 관한 기록이며, 셋째는 독서당 초창당시의 정당, 부옥, 정당 서남측의 방3칸, 남루등과 함께 문회(文會)라 편역한 신당과 허옥, 장랑 등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글에는 독서당의 수목과 주변의 풍광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한편, 윤현의 호당기보다 약 30여년 이후의 기록으로 선조(宣祖, 1552-1608)대에 출간된 심수경의 『견한잡록』이 있다. 『청천견한록(聽天遣閑錄)』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에는 다양한 사실적 이야기가 수필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독서당의 건물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문헌자료 B. 심수경(沈守慶), 『견한잡록(遣閑雜錄)』 중
(원문은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

... 독서당은 예전에 대청(大廳)과 남루(南樓)가 있었고, 루 북쪽에 침방(寢房)이 있었다. 임자년에 당료(堂僚) 임당정유길(鄭林塘惟吉), 낙촌박충원(朴駱村忠元), 국간윤현(元尹菊礪鉉), 동원김귀영(金東園貴榮)과 내가 루 서쪽에 당 하나를 짓고 문회(文會)라 하였다. 이후 삼십여년 후 당원(堂員)들이 서북쪽 못가에 신당(新堂)을 지었다.¹⁸ ... 후략

위 글은 「호당기」에 비해 건물의 묘사는 비교적 간략하지만, 독서당의 위치나 주요 건물들의 명칭과 연혁, 문회당의 건립과 뒤이은 신당의 추가건립 사실 등을 기록하고 있다.

뒤이어 1674년에 간행된 이식의 문집인 『택당선생별집(澤堂先生別集)』에 수록된 「기서당구기」는 동호독서당이 임란으로 소실된 후에 이식이 독서당의 옛 터를 보고 기록한 것이다. 앞의 두 문헌과 같이 독서당 건물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문헌자료 C. 이식(李植), 「기서당구기(記書堂舊基)」 중
(원문은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

... 독서당의 옛 관리였던 김국(金國)을 만나게 되어 독서당의 고사에 대해서 붙는 한편 그와 함께 직접 옛 터를 찾아가 본 것을 기록하고자 한다. ... 정당(正堂)은 모두 열두 칸이다(通計十二間).¹⁹ 오른편엔 서상방(西上房) 세 칸이 있다.²⁰ 앞에는 루(樓)가 세 칸이 있는데, 소위 남루(南樓)이다. 왼편엔 동상방(東上房) 세 칸이 있다.²¹ 앞에는 문회당(文會堂) 여덟 칸이 있다.²² ... 정당(正堂)과 동방(東房) 사이에는 장서각(藏書閣) 두 칸이 있는데, 같은 건물 안에서 벽만을 나누었다.(連棟而隔壁) 그 북쪽에는 보재실(報漏室)이 있고, 실의 북쪽에는 측영대(測影臺)가 있다.²³ 동쪽 담장(東墻) 밖에는 마구(馬廐) 세 칸, 서리방(書吏房) 세 칸, 대문(大門) 한 칸이 있다.²⁴ 문 아래 수심포 밖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정자(小亭) 두 칸이 있는데, 이 곳은 손님을 맞는 곳이었다. 이 정자를 비롯해 주방(庖廚), 리방(吏房)은 모두 한 칸에 네 개의 기둥(楹)이 있고 정당(正堂)을 비롯한 방들과 누각은 앞 뒤로 여덟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졌다.(不比正堂諸房。樓有前後翼爲八楹) 초석(礎石)이 묻혀 있어 대략의 칸 수를 기록한다. ... 후략

앞서 살펴본 문헌자료 A, B, C는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독서당의 중심 건물들은 대부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각 건물의 명칭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가령 자료 A에서 정당(正堂)으로 기록한 건물을 자료 B는 대청(大廳)으로, 자료 C에서는 다시 정당으로 기록하였다. 또, 정당의 동쪽에 딸린 건물은 자료 A는 부옥(附屋)으로, 자료 B는 동방(東房)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C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 정당 남서쪽

Table 1. Classification of building names of Literatures related on Dongho Dokseodang

	Literature A.	Literature B.	Literature C.
Name	「Hodang-gi (湖堂記)」	『Miscellany of Kyon-Han (遣閑雜錄)』	「Giseodang-gu gi (記書堂舊基)」
Writer	Yoon, H. (尹鉉)	Shim, S. (沈守慶)	Lee, S. (李植)
Period (assumption)	1550's	1580's	1600's
Name of main buildings	Jeongdang (正堂)	Daecheong (大廳)	Jeongdang (正堂)
	Buok (附屋)	-	DongBang (東房)
	Bangsangan (房三間)	Chimban (寢房)	Seosangbang (西上房)
	-	-	Dongsangbang (東上房)
	Namru (南樓)	Namru (南樓)	Namru (南樓)
	Munhoedang (文會堂)	Munhoedang (文會堂)	Munhoedang (文會堂)
Name of sub buildings	Hanggak (行閣)	-	-
	-	Shindang (新堂)	-
	Janrang (長廊)	-	Magu (馬廐) Seoribang (書吏房)
	Heook (虛屋)	-	-

의 건물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 A는 방3칸(房三間), 자료 B는 침방(寢房), 자료 C는 서상방(西上房)으로 기록하였다. 위의 기록만으로는 어떤 건물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자료 C에는 동상방(東上房)이라는 명칭이 새로 등장한다. 남루와 문회당에 대해서는 자료 A,B,C 모두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자료에 따라 행각, 장랑, 마구, 서리방 등의 부가적인 건물의 명칭을 기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Table 1).

세 문헌 자료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가장 늦은 시기의 기록인 이식의 「기서당구기」에서만 유독 정당과 동서상방 제도의 인식이 엇보인다는 것이다.

동서상방, 또는 동서무(東西廡), 동서제(東西齋)와 같은 명칭은 동시기에 주로 부속건물을 정당이나 앞마당의 좌우에 대칭으로 둔 객사나 문묘, 향교 등의 관립건축에 사용되었다.⁵⁾ 이에 비해 동호독서당은 초창 당시나 이후 몇 영역확장을 거치면서도 좌우 대칭의 배치형식이 엄격히 지켜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명칭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중기라는 시기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교와 서원의 확산을 중심으로 확립되어가던 이상적인 강학공간의 좌우 대칭적 배치형식이 저자인 이식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문헌자료가 기록하고 있는 건물별 규모도 차이가 있다. 먼저 자료 A에서 기록하고 있는 정당과 부옥의 규모는 각각 세 칸과 네 칸인데, 자료 C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열두 칸이라고 기록하였다.⁶⁾ 문회당의 경우 또한 자료 A는 4칸으로, 자료C는 8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⁷⁾ 이는 자료 A의 경우 전면 칸수만을 기록한데 비하여, 자료 C는 건물의 총 면적을 칸수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보인다. ‘칸(間)’은 당시에도 길이와 면적을 지칭하는 중의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B에는 독서당의 건물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다.

2.2 회화기록

1531년과 1570년에 각각 독서당에서의 계회(契會)를 기록한 독서당계회도가 두 점 전하는데, 이를 통해 그림에 기록된 동호독서당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531년 계회도>는 1517년 독서당이 처음 설립되고 약 14년이 지난 비교적 초기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문헌기록을 통해 볼 때, 정당과 부옥, 남루와 서상방(자료 A에서는 침방으로 기록됨)이 있었던 시기의 그림이지만 정작 건물의 묘사는 매우 소략하여 정당과 부옥, 남루로 추정되는 건물의 지붕 정도만을 살펴볼 수 있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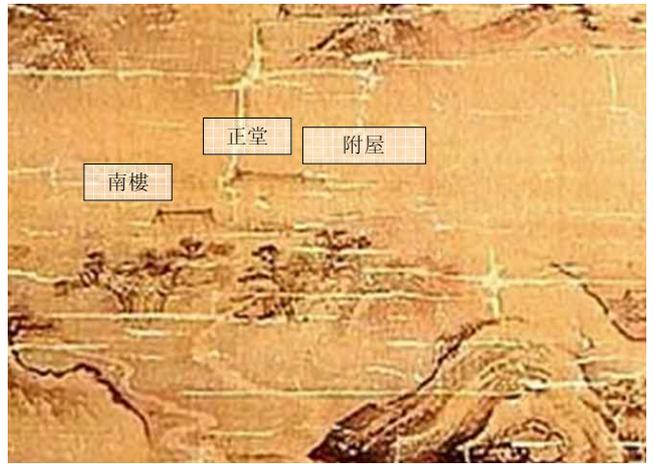


Figure 1. Part of Dongho Dokseodang from <Dokseodang Gyehoe-do(讀書堂契會圖)>in 1531(caption by author), ink on silk, 91.5cm x 62.3cm, Private collection in Japan

1517년 정당영역의 완성으로 동호독서당은 사가독서를 위한 일단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사가독서 인원에 비해 마련된 공간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1551년에 독서당원들을 중심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⁸⁾

확장은 동남쪽에 있던 이청(吏廳)과 주방(廚間)을 헐고 그 자리에 신당을 짓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문회당이 새로 지어진 대지는 높이 차이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남향으로 큰 집을 앉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공사는 같은 해 초가을에 마쳤고, 8월에는 마구간(馬廐)이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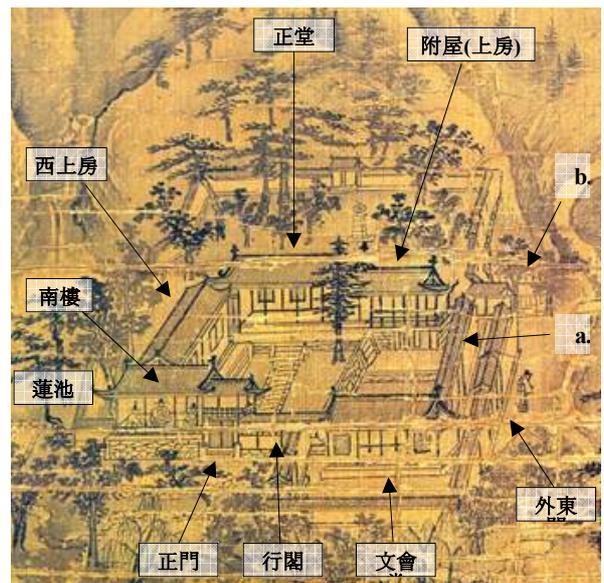


Figure 2. Part of Dongho Dokseodang from <Dokseodang Gyehoe-do(讀書堂契會圖)>in 1570(caption by author), ink on silk, 102cm x 57.5c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그런데 문회당이 완성되고 나자 곧 그 서편에 있던 남루와 문회당을 직접 연결하는 행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 행각을 새로 짓는다면 이전에 있던 담장보다 높아져 독서당 내에서 동호를 전망하는데

5) Choi, hang(崔恒), 1409-1474), 『Jipyunghyun gaeksa Jungyounggi(砥平縣客舍重營記)』에는 아래와 같이 동서상방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南大廳東西上房。左右長廊。以至吏廳大門。莫不營構”

또한 Jo, kyung nam(趙慶男, 1570-1641), 『Sokjabrok(續雜錄)』에서도 아래와 같이 동서상방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直往客舍。兩差與八差以下頭頭胡。東西上房。次次分入”

6) 문헌자료 A의 6, 문헌자료 C의 19

7) 문헌자료 A의 13, 문헌자료 C의 22

8) 문헌자료 A의 1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으나, 행각은 결국 윤현의 계획대로 이듬해 3월에 완성되었다.⁹⁾ 이 외에도 정당 남서쪽 건물, 즉 이식이 서상방으로 지칭한 건물의 온돌 보수공사와 문회당 앞마당을 고르는 공사가 이 시기에 함께 진행되었다.¹⁰⁾

1551년에 있었던 확장 이후 약 19년 뒤에 그려진 <1570년 계획도>에는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들을 비롯해 확장기에 추가된 문회당과 행각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다 (Figure 2). 이 그림에는 동호독서당 각 건물들의 배치, 형식, 규모 등이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서 이 시기의 동호독서당에는 초기에 지어진 정당과 부옥, 남루와 서상방을 비롯해 새로 조성된 문회당 영역, 문회당과 남루를 잇는 행각, 영역별로 조성된 문들과 담장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570년 계획도>가 그려진지 약 17년이 지난 이후인 1587년 동호독서당에는 또 다른 신당이 추가로 건립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이후의 모습을 기록한 그림은 없어 자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는 없고, 다만 문헌자료 B를 통해 신당의 대략적인 위치가 남루 서북쪽에 위치한 연지(蓮池) 근처였다는 정도만을 알 수 있다.¹¹⁾

이후 동호독서당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어 1608년(선조 41)에는 한강의 옛 군영 망루를 고쳐 사용하기도 했다. 이식의 「독서당남루기」는 이 시기 새로운 남루에 걸었던 기문으로, 이를 통해 동호독서당이 소실된 이유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다.¹²⁾

3. 16세기 후반 동호독서당의 복원계획

3.1 동호독서당의 추정안 비교

동호 독서당의 건축형식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연구자들에 의해 크게 세 가지의 추정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안들은 정당, 부옥, 남루, 문회당, 행각 및 서상방 등 동호독서당의 세부 건물들을 각각 다른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Table 2 & Figure 3, 4, 5).

추정안들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소개한 사료의 해석 차이에서 주로 기인한다. 특히 동호독서당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1570년 계획도>에는 주변 건물에 의해 가려진 부분들이 있고, 이 시기의 그림 자료는 근대적 투영법에 따라 그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의 왜곡이 있고, 정확한 축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회화가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고유한 어법으로 제작된다는 점은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있어 회화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¹³⁾

9) 문헌자료 A의 II.

10) 문헌자료 A의 9, 16

11) 문헌자료 B의 18

12) Lee, sik(李植), 「Dokseodang Namrugi(讀書堂南樓記)」에서 아래와 같이 호당의 소실 이유와 그 이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湖堂燼於倭亂。堂選亦廢。自萬曆戊申。復權寓漢江故軍營爲堂。營當襟帶之要。形勝不減舊堂。而其南樓本爲瞭候設。故尤於登覽遠近爲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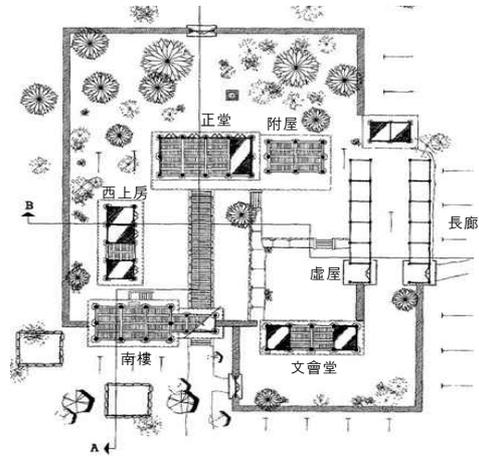


Figure 3. Reconstruction Drawing by Her, Gyem, 2003



Figure 4. Reconstruction Drawing by Yoon, Jin Young,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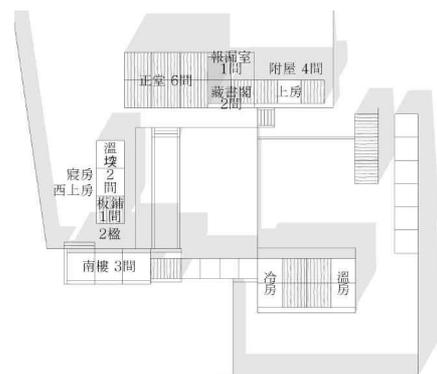


Figure 5. Reconstruction Drawing by Kim, Wan & Han, Dong-soo, 2011

따라서 그림을 통해 알 수 없는 부분들은 문헌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각 연구자들마다 참조한 문헌기록의 종류와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최종적인 추정안의 차이로 이어졌다. 그림 자료와 문헌들을 종합하

13) 회화가 가진 객관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1990년대 말 미국에서 송대의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회화는 결코 중립적인 기록이 아니며, 고유한 어법으로 제작된다는 점이 분명해진 바 있다.

Murray, Julia K.(1997). Water under a bridge: Further thoughts on the qingming scroll. *Journal of Song Yuan Studies* 27:99-107

Table 2. Differences in assumption of preceding studies in Dongho Dokseodang

Name of Building \ Author	Her, Gyem (2002, Figure 3)	Yun, Jin young (2004, Figure 4)	Kim, Wan Han, Dong-soo (2011, Figure 5)	New Assumption (2015, Figure 6)
Jeongdang(A) or Daecheong(B) (正堂 or 大廳)	4(wide) x 2(deep)	3x1	3x2	3x2
Buok(A) or DongBang(C) (附屋 or 東房)	2x2	4x1.5	4x1	4x1.5
Bangsamgan(A) or Chimbang(B) or Seosangbang(C) (房三間 or 寢房 or 西上房)	4x1	3x1	3x1	3x1
Namru(A,B,C) (南樓)	3x2	3x2	3x1	3x2
Munhoedang(A,B,C) (文會堂)	4x1	4x2	4x2	4x2
Jangrang(A) (長廊)	6x1	6x1	6x1	?
Hoeok(A) (虛屋)	6x1	3.5x1	3x1	?

여 선행연구의 안들을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당(자료 B에서는 大廳으로 표기)

허겸은 정당을 정면 4칸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Figure 3). 이것은 <1570년 계획도>를 보고, 정당의 남동쪽 나무에 가려진 부분에 한 칸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결과이나, 「호당기」에 정당은 3칸, 부옥은 4칸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⁴⁾ 후속하는 윤진영과 김완, 한동수의 연구에서는 정당의 규모를 모두 정면 3칸으로 「호당기」의 기록과 같이 추정하였다(Figure 4&5). 다만, 측면의 규모는 각각 1칸과 2칸으로 다르게 추정하였고, 온돌방의 유무 등 바닥형식 역시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나. 부옥(문헌자료 C에서는 東房으로 표기)

상방(上房)이 있던 부옥의 규모와 바닥형식 역시 각 연구자들마다 추정이 다르다. 허겸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규모에 모두 마루방으로(Figure 3), 윤진영은 정면 4칸, 측면 1칸의 규모에 되는 마루로, 나머지 실내 바닥형식은 표시하지 않았다(Figure 4). 김완, 한동수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에 1칸의 상방이 오른쪽 두 번째 칸에 있는 것으로, 부옥과 정당 사이에 장서각 1칸을 비롯해 총 3칸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Figure 5). 그러나 「호당기」에 의하면 부옥은 정면 4칸이며, 장서각은 부옥 동편의 세 번째 칸에 있었고, 두 번째 칸은 온실(溫室)로 표현된 상방이었다.¹⁵⁾ 따라서 앞선 연구의 추정안들은 모두 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서상방(문헌자료 A는 房三間, 문헌자료 B는 寢房으로 표기)

서상방(西上房)은 정당의 서남쪽에 있다. 허겸은 총 4칸의 규모에 3칸의 온돌과 1칸의 마루로 추정하였다. <1570년 계획도>에는 남루에 가려 서상방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호당기」에 의하면 2칸의 온실(溫室)과

1칸의 마루(板鋪)로 구성되었으며, 앞쪽으로는 기둥(楹)을 붙였다고 한다.¹⁶⁾ 이때 기둥을 붙인 앞(前)을 어느쪽, 즉 마당이 있는 동쪽인지 아니면 남루에 면한 남쪽인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다. 김완, 한동수의 추정안은 서상방의 남쪽에 누마루 형식을 덧붙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1570년 계획도>에서도 마당 쪽으로는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방위상의 남쪽을 앞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남루

남루는 서상방의 남쪽에 있다. 남루는 동호독서당이 위치한 응봉 자락의 경사 때문에 높은 기단위에 건립되었고, 남쪽에는 난간을 설치하였다.¹⁷⁾ 「호당기」에 의하면 남루의 정면은 3칸 이었던 것이 확실하다.¹⁸⁾ 그러나 남루의 측면에 대해서는 문헌자료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남루의 측면 규모는 연구자 마다 1~2칸으로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마. 문회당

문회당은 동호독서당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있었던 정당, 부옥, 서상방, 남루와는 달리 1551년에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윤현의 기록에서는 신당(新堂)으로도 지칭되었다.¹⁹⁾ 자료 A에 따르면 이 건물은 정면 4칸의 규모였는데, 중앙의 2칸을 제외한 동편과 서편에 각각 정면 1칸씩의 온실(溫室)과 양방(涼房)을 설치하였고, 이 방들에는 모두 남북으로 창을 내었다.²⁰⁾ 중앙의 2칸에는 방을 설치하지 않고 대청과 같이 전면을 터서 사용하였다. 이 공간의 북쪽에는 창을 두었지만, 남쪽으로는 분합을 달아서 필요에 따라 전체를 개방하기도 하였다.²¹⁾ 문회당의 경우

16) 문헌자료 A의 9
 17) 문헌자료 A의 11
 18) 문헌자료 A의 9
 19) 문헌자료 B의 신당은 1587년에 서북쪽 연지에 세워진 건물로써, 이와는 다른 건물이다.
 20) 문헌자료 A의 13
 21) 문헌자료 A의 14

14) 문헌자료 A의 6
 15) 문헌자료 A의 7

에도 측면 규모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허겸의 연구에서는 1칸으로, 윤진영과 김완·한동수의 연구에서는 2칸으로 서로 다르게 추정하고 있다.

바. 행각

1551년 문회당이 건립된 후, 남루와 문회당 사이의 통행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행각은 정문의 역할을 겸한 1칸의 문루를 포함해 총 4칸의 규모로 1552년 3월에 완성되었다.²²⁾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루의 포함여부에 따라 행각의 규모를 각각 4칸(윤진영)과 5칸(김완, 한동수)으로 보고 있으나, 그 터의 크기 자체를 4칸으로 기록한 원문에 따라 문루까지를 포함시켜 모두 4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사. 장랑과 허옥

이 밖에, <1570년 계획도>에는 문회당의 동쪽 뒤편으로 담장이나 행랑으로 보이는 건물군이 그려져 있고, 이 밖으로도 몇 채의 건물들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 이 부분은 자료 A의 허옥(虛屋)3칸, 장랑(長廊)6칸 등의 기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³⁾ 또한 자료 C에도 동쪽 담장 밖에 3칸의 마구(馬廐), 3칸의 서리방(書吏房), 1칸의 대문의 기록이 있다.²⁴⁾ 하지만 문헌 기록보다 많은 수의 건물이 <1570년 계획도>에 남아있으며, 위치와 형식에도 추정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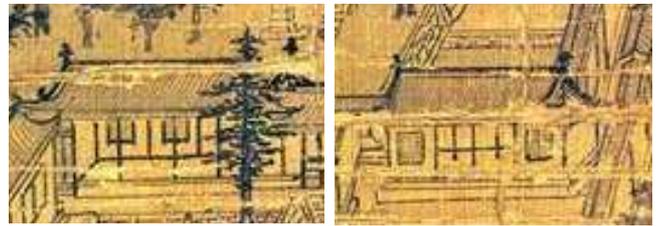
3.2 16세기 후반 동호독서당의 추정 복원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호독서당과 관련된 자료들에는 주로 문회당이 건립되고, 자료 A가 기록된 1550년대와 <1570년 계획도>가 그려진 1570년까지의 상황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의 동호독서당을 복원의 기준시점으로 한다.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의 추정안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위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16세기 후반 확장기의 동호독서당 복원안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가. 정당과 부옥

우선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정당과 부옥, 문회당의 규모와 형식에 관한 것이다. 자료 A에서 기록하고 있는 정당과 부옥의 규모는 각각 세 칸과 네 칸인데, 자료 C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열두 칸이라고 기록하였다.²⁵⁾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료 A의 경우 전면 칸수만을 기록하였고, 자료 C는 건물의 총 규모를 칸수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570년 계획도>에 묘사된 문회당과 정당 지붕의 크기가 유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당과 문회당의 측면이 2칸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과도 상통한다(Figure 6).

그러므로 정당의 규모는 정면 3칸에 측면 2칸으로 총 여섯 칸이고, 부옥은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정면이 4칸, 측면이 1.5칸으로 해서 자료 C에서 기록하고 있는 열두 칸의 규모와 일치한다. 또한 남루 측면의 규모 역시



a) Jeongdang(正堂) b) Munhoedang(文會堂)

Figure 6. Comparison of roof size in the <Gyehoe-do, 1570>

<1570년 계획도>에 묘사된 지붕크기를 통해 볼 때, 정당 또는 문회당과 같은 2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옥은 처음에는 동쪽부터 집물의 보관 장소, 상방으로 불리던 온실, 장서각 그리고 빈 칸으로 구성되었다가 뒤에 장서각과 빈 칸 사이를 터 서가를 두었다.²⁶⁾ 정당과 부옥의 사이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반 칸을 비웠으므로, 두 건물은 평면적으로는 떨어져 있었다.²⁷⁾ 이 부분의 지붕은 <1570년 계획도>에는 전면에 그려진 나무로 인해 가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그림에서 유사하게 묘사된 남루와 문루의 연결부분처럼, 지붕의 높이가 낮아지면 서 맞붙은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570년 계획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청으로 이루어진 정당의 서남쪽에는 정당과 직각방향으로 온돌과 마루로 구성된 방삼간(房三間, 자료 C에서는 西上房으로 표기)이 있고, 정당에 동쪽에는 정당과 평행으로 제 2칸에 온실을 둔 부옥이 나란히 위치하여, 부속건물들이 정당과 함께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동시기의 강학공간인 성균관 명륜당, 나주향교 명륜당 등에서는 각각 좌·우로 평행하게 상방을 두었고, 대부분의 향교, 서원 등에서는 명륜당(明倫堂)의 앞쪽 마당을 두고 동서재(東西齋)를 직각으로 배치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동호독서당의 강학공간은 그 중간적인 배치를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이렇게 양 옆으로 부속된 건물을 가까이 두는 형식은 조선시대 객사의 정청(正廳)과 익사(翼舍)의 모습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나. 서상방과 동상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의 전면 서쪽에는 서상방을 두었다.²⁸⁾ 자료 A에는 서쪽에만 이러한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자료 C에는 3칸의 동상방(東上房)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²⁹⁾ 그런데, <1570년 계획도>에는 동상방이라고 불릴만한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동상방은 계획도가 그려진 1570년 이후에 정당 앞마당의 동쪽에 새로 지어졌거나, 독서당 소실 이후 주춧돌만을 본 이식이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자료 C에는 동상방이 아닌 동방이라 지칭한 건물이 다시 등장하며, 세부 실들의 설명도 자료 A와 일치한다.³⁰⁾ 따라서 부옥이 동상방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문회당

22) 문헌자료 A의 3
 23) 문헌자료 A의 17
 24) 문헌자료 C의 24
 25) 문헌자료 A의 6, 문헌자료 C의 19
 26) 문헌자료 A의 7
 27) 문헌자료 A의 8
 28) 문헌자료 A의 9, 문헌자료 C의 20
 29) 문헌자료 C의 21
 30) 문헌자료 C의 23, 문헌자료 A의 7

22) 문헌자료 A의 3
 23) 문헌자료 A의 17
 24) 문헌자료 C의 24
 25) 문헌자료 A의 6, 문헌자료 C의 19

자료 A의 문회당 부분에는 ‘양방(涼房)’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³¹⁾ 서늘한 방이라는 뜻의 양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문회당 서편 방의 바닥형식을 다르게 추정할 수 있는데, 앞선 연구들에서는 모두 동편과 같이 온실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양방은 주로 상량문이나 기문에서 온돌방을 의미하는 온실(溫室)이나 옥실(燠室)의 반대미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³²⁾ 또한 1759년의 의궤(儀軌)에는, 건물의 각 부분이 온실, 양방(涼房), 퇴, 대청 등으로 나누어 서술되어 있고, 특히 낙선재의 한 부분만을 양방으로 지칭하고 있다.³³⁾ 따라서 자료 A에서 등장하는 양방은 그 뜻에 따라 온돌이 아니며, 대청 또는 퇴 부분과도 구분하여 특별히 마루를 깎 판방(板房)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 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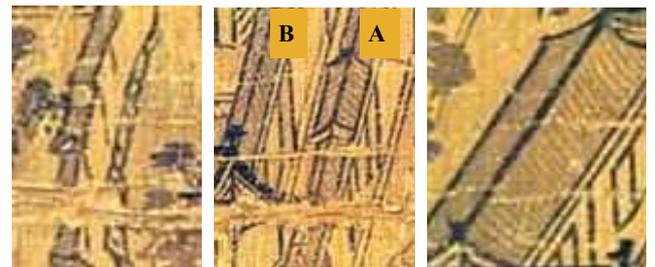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 추정안마다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행각 부근이다. 행각이 위치한 곳은 남루와 문회당의 사이로, 이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담장은 동호독서당 내부에서 동호를 조망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비교적 낮은 높이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옛 담장을 헐고, 행각을 짓자는 윤현의 의견에 동호의 조망을 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새로 지어질 행각은 기존의 담장보다 높지 않게 계획되어야 했다.³⁴⁾ 따라서 행각은 옛 담장보다 높지 않되, 그 안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바닥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획되었다. 마침 담장이 있던 곳의 바닥은 대부분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3-4척 정도 파내려간 후 행각을 설치하였다. 행각이 지어지기 전과 후의 상황을 단면으로 추정해 보면 지면이 상당히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만으로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작은 초석(小礎)과 짧은 기둥(短柱)을 사용하고, 상부에는 굽은 보(曲椀)를 걸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³⁵⁾

마. 허옥과 장랑

마지막으로, 기존 추정안의 해석도 다양할뿐더러 문헌 자료와 그림이 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허옥과 장랑에 대한 것이다. 허옥(虛屋)은 동시기의 문헌에서 사용례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주로 빈집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한다.³⁶⁾ 자료 A에서는 문회당의 동편에 허옥 3칸을 연결하여 얹어 상방(上房) 아래쪽으로 붙인 후 부엌, 문,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⁷⁾

허옥은 규모나 쓰임새를 고려해볼 때 <1570년 계획도>에서 문회당의 동편에 행랑처럼 그려진 부분이거나(Figure 2, a), 상방이 있던 부옥의 뒤쪽으로 희미하게 그려진 집들(Figure 2, b) 중 하나로 생각되지만, 기록이 충분치 않아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다만, <1570년 계획도>에서 묘사된 이 부분의 지붕 크기를 인접한 건물이나 담장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담장에 가깝다(Figure 7). 그렇다면 허옥은 부옥 뒤쪽으로 희미하게 그려진 집들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허옥에 대한 기존 추정안의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자료 A의 17 ‘그 밖에 장랑 여섯칸이 있는데, 이청, 외동문, 헛간이다.(其外長廊六間。爲吏廳爲外東門爲虛間)’를, 기존에는 허옥의 바깥쪽으로 장랑(長廊) 6칸을 두어 이청(吏廳)과 외동문(外東門), 헛간(虛間)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았다. 마침 <1570년 계획도>에는 문회당의 북동쪽에 두 줄로 행랑과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외동문으로 보이는 문이 함께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는 장랑으로(Figure 7, b, A), 하나는 허옥(Figure 7, b, B)으로 보았던 것이다.



a) wall(牆) b)Undefined part(未定) c)Seosangbang(西上房)
Figure 7. Comparison of roof size in the<Gyehoe-do, 1570>

그런데 자료 A보다 후대의 기록인 자료 C에는 동장(東牆)바깥에 마굿간이 3칸, 서리방이 3칸, 대문이 1칸 있었다고 하였을 뿐, 장랑이라는 표현은 없다.³⁸⁾ 이 기록을 <1570년 계획도>와 비교해 보면, 두 줄의 행랑처럼 표현

36) Wooam(尤庵) Song, siyeol(宋時烈, 1607-1689)의 시문집인 『Songjadaejeon(宋子大全)』에는 아래와 같이 허간(虛間)을 빈집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 구절이 등장한다.

密處誰防虛屋寇 / 은밀한 곳에서 빈집의 도적을 막아야 하는데 (원문의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함.)

37) 문헌자료 A의 17

38) 문헌자료 C의 24

39) 문헌에 명칭과 위치가 분명한 闕, 分閣, 窓은 도면에 직접표기하였고, 그림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명칭을 확인할 수 없는 창과 문은 窓戶, 門으로 표기하였다. 기둥 역시 문헌에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인 楹을 기준으로 하여 원주로 표기하였으나, 모든 기둥이 원주였는지는 알 수 없

31) 문헌자료 A의 13

32) 양방과 옥실을 서로 대비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상량문과 기문의 사례는 많지만, ‘涼房燠室’을 바로 붙여 대구의 의미로 사용한 문헌들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Chae, soo(蔡壽, 1449-1515), 『Jirakheongi(至樂軒記)』, 1674

Oh, eokryoung(吳億齡, 1552-1618), 『Aeildangsangryangmoon(愛日堂上椽文)』, 1662

Jo, dukrin(趙德鄰, 1658-1737), 『Chuieundanggi(醉隱堂記)』, 1898

Shin, Jeongmo(申正模, 1691-1742), 『Youbidanggi(有斐堂記)』, 1899

33) 『GaryedogamuigweYeongjojeongsunwanghu(嘉禮都監儀軌英祖貞純王后)』中 Surisouigwe(修理所儀軌) Subonjil(手本稭)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낙선재(樂善齋)를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

양방(涼房) 3칸 지의 박이용 납염한 작은 광두정 43개. 양방 1칸 반 지의 박이용 납염한 작은 광두정 31개. 남퇴 3칸 반 지의 박이용 납염한 작은 광두정 39개. 서편 중문의 붙임목 1개. 박이용 1치짜리 못 5개. 배목을 갖춘 중치 등근고리 2개. 오리목 못 1개. (원문의 해석은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함.)

34) 문헌자료 A의 2

35) 문헌자료 A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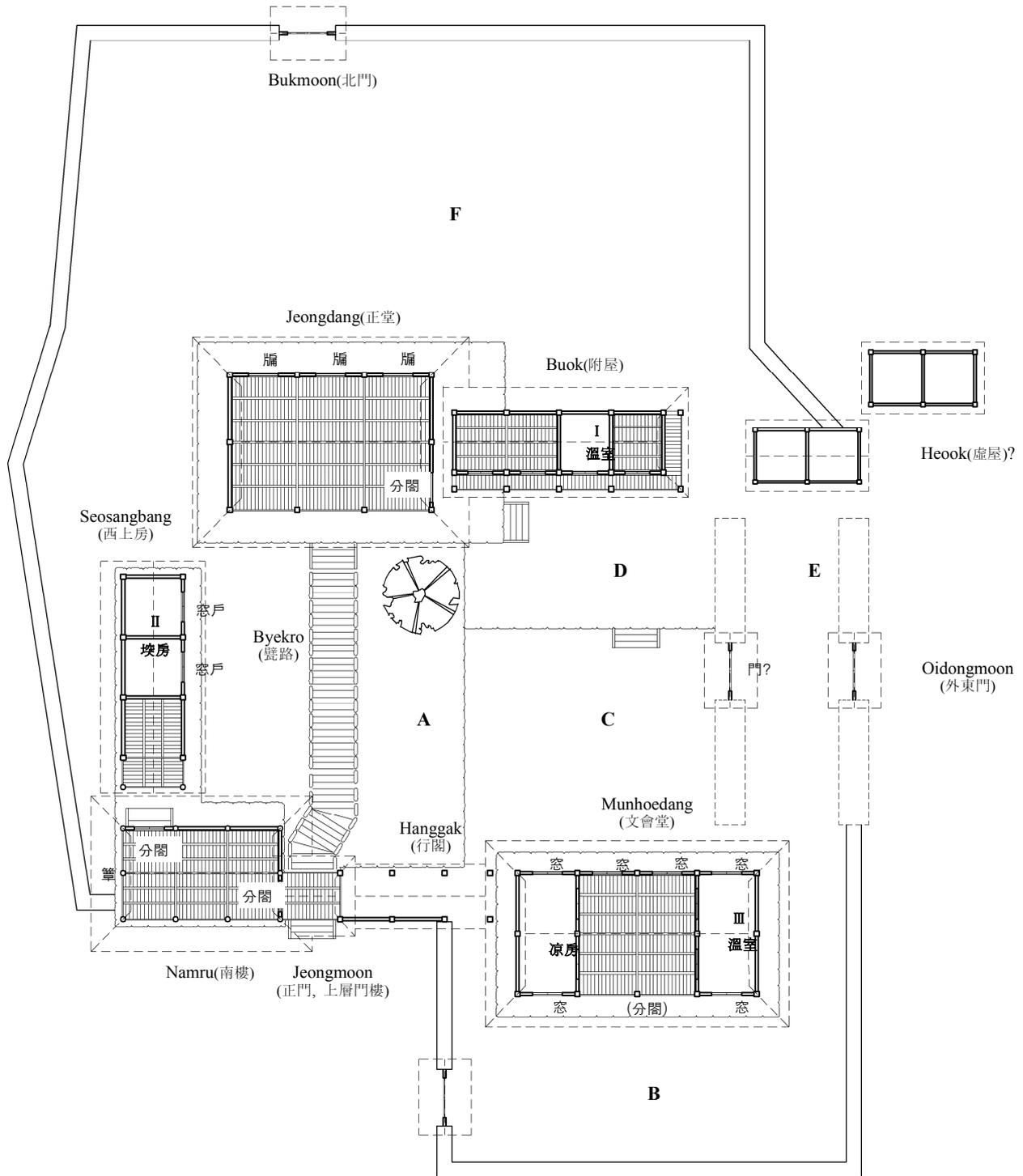


Figure 8. Reconstruction Drawing of DonghoDokseodang(東湖讀書堂) in late 16th Century(Non scale)³⁹⁾

된 부분의 서쪽 건물(Figure 7, b, B)을 동장으로, 그 동쪽 건물(Figure 7, b, A)을 대문 등이 있는 장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숙단하기 어려운 것은 실제로 Figure 7. b, B 부분의 지붕은 건물이라고 보기에 너무 얇고, 담장보다는 다소 두껍게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 정확한 규모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허옥 및 외동문 주변은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변 복원안에서도 확정하지 못하고 점선으로 표기하였다(Figure 8).

4. 16세기 후반 동호독서당의 건축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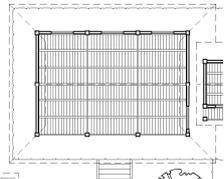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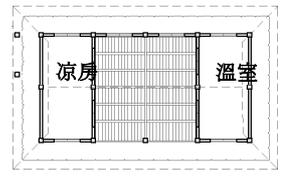
이와 같이, 16세기 후반의 시점으로 복원한 동호독서당의 모습에서는 조선중기 건축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다음

의 몇 가지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4.1 온돌·마루의 조합과 강학공간의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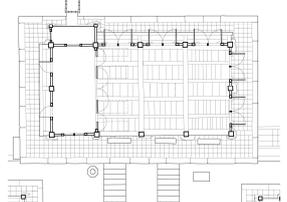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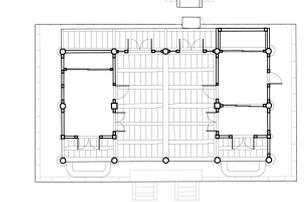
동호독서당은 초창기부터 있었던 정당과 문회당으로 이름 붙여진 신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문회당을 신당이라고 별칭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정당과 문회당은 각각 동호독서당의 구당(舊堂)과 신당(新堂)으로 중심적인 강학공간을 구성한다. 그런데, 1517년에 지어진 정당(舊堂)의 내부에는 모두 마루를 깔았던 것에 반해 1551년에 지어진 문회당(新堂)에는 정면 4칸 중 중앙 2칸에는 마루를 두고 좌우 각 1칸에 온실과 양방을 따로 마련하였다 (Table 3).

Table 3. Plan Comparison of old lecture hall(正堂) and new lecture hall(文會堂) in Dongho Dokseodang

<p>Jeongdang(正堂, 舊堂) (old lecture hall building, 1517)</p>	<p>Munhoedang(文會堂, 新堂) (new lecture hall building, 1551)</p>
	

정면 4칸의 신당(文會堂)은 정면 3칸의 구당(正堂)에 비해 전면 폭을 키웠을 뿐 아니라, 한 건물 내로 온돌을 끌어들이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양쪽 끝을 별도의 방으로 구분하고, 그 한쪽에 온돌방을 둔 문회당의 평면 형식은 조선 중기 이후 유행하는 서원의 강당형식과도 일치한다 (Kim, 1997). 특히, 도산서원의 강당인 전교당(典教堂)은 정면 4칸 중 서쪽 1칸에 온돌방을 두었다는 점에서 온돌방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문회당과 그 규모나 계획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Table 4).

Table 4. Plan Comparison of confucian lecture hall

<p>Dosan Seowon Jeongyodang (陶山書院典教堂, 1575)</p>	<p>Namkye Seowon Myongseongdang (濼溪書院明誠堂, established 1559, moved 1612)</p>
	

*drawings from 『Seowon, Neo-Confucian Academies of the Joseon Dynasty Photos and Drawings』, 2015, p.32&36

문회당이 지어진 것이 1551년 이고, 도산서원의 전교당은 1575년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두 건물의 공간구성은 강학공간에 온돌이 사용되기 시작한 조선중기의 특성을 보여 준다. 이렇게 정면 4칸 규모의 강당 좌우로 온

돌방 또는 판방을 두는 형식은 같은 시기인 1559년에 건립된(1612년 이전) 함양 남계서원(濼溪書院)의 강당인 명성당(明誠堂)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Table 4).

정면의 규모만 5칸으로 늘어나고 중앙 3칸을 대청으로 사용했을 뿐, 좌우 각 1칸은 온돌방 또는 판방을 두는 이 같은 평면 형식은 이후 옥산서원 구인당(玉山書院求仁堂, 1573년), 도동서원 중정당(道東書院中正堂, 1605년), 병산서원 입교당(屏山書院立教堂, 1614년) 등 조선 중기 이후에 지어진 대부분의 서원 강당의 전형이 된다.

동호독서당에는 총 3개소에 온돌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상방으로 지칭되던 방으로, 부옥의 동편에서 두 번째 칸에 있었고(Figure 8, I, 溫室), 다른 하나는 서상방에 2칸이 연결하여 설치되었다(Figure 8, II, 堦房). 마지막은 새로 지어진 문회당의 동편 방에 설치되어 있었다(Figure 8, III, 溫室). 그런데 이중 유독 서상방에만 온실이 아닌 돌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굴뚝 또는 구들을 뜻하는 돌(堦)자를 쓴 것으로 보아, 돌방도 역시 온돌방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한 시기의 문헌자료에 돌방이라는 용어가 난방이 되는 바닥형식을 의미하고 있는 점, 마루와 대구를 이루어 대비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도 돌방이 온돌방을 지칭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⁴⁰⁾

이렇게 온돌과 마루라는 두 가지 바닥형식이 사용되자 한 건물 내에서 또는 연결한 두 건물 바닥의 물리적 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Jeon & Kwon, 2012). 정당 동편 부옥의 온돌방(上房)은 서쪽이 동쪽보다 높았던 동호독서당의 지세로 인해 정당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지만, 연결한 정당과 바닥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떨어진 루의 형식을 취하고 하부에 합실아궁이를 두었다. 또, 1551년 가을에 서상방의 돌방(堦房)을 수리했던 이유 역시 옆 칸의 마루방과 바닥 높이가 달라 똑같이 맞추기 위함이었다.⁴¹⁾ 이러한 모습들은 온돌의 확산과 함께 온돌과 마루라는 서로 다른 바닥형식이 연결한 건물 또는 한 건물 내에서 정리되어가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학공간의 중심건물에 온돌이 도입되었다는 변화에 더해 정당 전면마당을 두고, 그에 면한 좌우에 동·서상방을 두는 이상적인 배치형식을 추구했던 점 역시 동호독서당의 개건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만약 가장 늦은 시기의 기록인 자료 C에 등장하는 동상방3칸의 존재가 사실이었다면, <1570년 계획도>가 그려진 이후의 동호독서당 정당영역은 북쪽에는 정당, 남쪽에는 누각을 두고 좌·우에는 동·서상방을 두는 전형적인 강학공간의 배치형

40) Kim, Seryeom(金世濂, 1593-1646), 『Haesarak(海槎錄)』, 1636의 기록에는 돌방(堦房)이 새로 만들어졌으나 아직 덜 말라 청(廳)에서 자니 춥다(涼冷)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돌방은 아마도 난방이 되는 바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돌방을 마루(抹樓)와 대비되는 바닥형식으로 서술한 부분도 있다.

堦房新造未乾。宿于廳中。涼冷可言 / 不作堦房。只設抹樓

41) 문헌자료 A의 9

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상방은 자료 C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동상방을 추후에 건립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소 불균형적이지만 정당에 연결한 동쪽에 부옥을 두고, 앞마당 서쪽에 서상방을 두었던 점은 규범적 강당 배치형식이 정착되어가던 과도기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4.2 문과 중심건물의 영역별 구성

16세기 후반 동호독서당의 개건과정을 통해 한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인 중심건물마다 가능한 한 다른 문을 두고 별도의 마당으로 구분하려는 당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동호독서당은 크게 강학 영역과 관리 영역으로 구분된다. 강학 영역은 정당, 서상방과 남루로 둘러싸인 정당영역(Figure 8, A)이 먼저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후 정당의 동남쪽에 문회당이 건립되면서 새로운 영역이 조성되었다(Figure 8, B,C). 정당영역은 남쪽의 정문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가장 중심이 되는 진입로는 정문에서부터 정당까지 벽돌(甃)을 깔아 조성하였다. 그런데 정문의 위치는 1551년 문회당과 통하는 행각을 만들게 되면서 다소 변하게 된다.⁴³⁾

새로운 정문은 남루로부터 행각으로의 통행을 위한 사다리를 놓기 위해 불가피하게 문루(門樓)를 겸하게 되었는데, 이때 정문의 위치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때문에 정문에서 정당에 이르는 바닥의 길은 조금 휘게 되었지만, 윤현은 자료 A에서 벽로(甃路)를 따라 가면 곧당(堂)에 오를 수 있으니 길이 조금 굽은 것이 큰 병폐는 아니었다고 기록한 바 있다.⁴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조금의 변화가 생겼지만, 정당으로 통하는 정문이 있으니 괜찮다는 필자의 인식을 통해 중심건물과 함께 문이 영역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新堂) 영역 역시 중심 건물인 문회당의 건립 이후에 담장을 두르고, 외부에서 바로 드나들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정당영역과는 달리 신당 영역으로 출입하는 문은 건물의 정남쪽에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문회당이 정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위계가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지형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문회당의 앞마당은 건물이 지어지고 난 후 많은 공을 들여 잡석(亂石)을 채워 인공적으로 높인 것이다.⁴⁵⁾

즉, 문회당 쪽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지형의 불리한 점을 감내하면서까지 정당영역처럼 남쪽 편에 문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청(吏廳)과 주방, 마구간, 헛간 등으로 구성된 관리 영역(Figure 8, E)은 행랑 또는 담장(Figure 2. a)으로 강학 영역과 구분되었다. 이렇게 구분된 마당은 동쪽 바깥의 대문과의 사이에서 마치 주택의 행랑마당과 유사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이 밖에도 동호독서당에는 부옥의 앞마당(Figure 8, D)과 정당의 뒤쪽으로 별도의 마당(Figure 8, F)을 두었다. 담장을 두르고, 북쪽으로 다시 별도의 문을 낸 정당의 뒷마당에는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측영대(測影臺)가 있다.⁴⁶⁾

이처럼 동호독서당은 중심 건물인 당(堂)을 두고, 문과 담장을 통해 각각의 영역을 조성하였다. 특히 구당과 신당으로써 기능하였던 정당과 문회당 영역에는 별도의 마당과 문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동호독서당의 영역 구성에 문(門)과 당(堂)의 기본적인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말해 준다.

4.3 창호와 설비의 사용모습

16세기 후반의 동호독서당에는 여러 종류의 창호 및 차양설비들이 사용되었는데, 자료 A를 통해 유(牖), 분합(分閤)등의 창호와 더불어 자리(簾)를 목재 틀에 자리를 대어 각도의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개·폐식 차양의 사용례를 살필 수 있다.

유는 정당의 서북편에 설치되었는데, 남쪽을 비워둔 것에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아마도 북쪽 벽에 설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⁷⁾ 조선 중·후기의 문헌에서는 판호(板戶), 판창(板窓), 판유(板牖), 유창(牖窓)의 용례들이 모두 등장한다. 이들 용어가 모두 같은 종류의 판문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판으로 만든 들창만을 따로 구분하여 판유로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호(戶) 또는 창(窓) 대신 유(牖)로 표기한 자료 A의 기록을 현재의 자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창(窓)의 재료는 널판이었고, 개폐의 방식은 들어열개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청의 북벽에 판으로 된 들창을 설치한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 단언키는 어렵다.

실제로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유는 “벽을 뚫고서 나무를 가지고 교창을 만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조선중기의 예학자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의 문집인 『사계전서(沙溪全書)』 중 「가례집람도설(家禮輯覽圖說)」에서도 유의 뜻에 대해 설문해자를 인용하고 있을 뿐, 들어열개식의 개폐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⁴⁸⁾ 오히려 독서당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건물 대청의 북벽에 사용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고식(古式)의 창호가 영쌍

42) Li, Yun-ho(李允錫)는 『Cathay's Idea-Design Theory of Chinese Classical Architecture(華夏意匠 - 中國古典建築設計原理分析)』, 明文書局, 1982 에서 ‘문당제도(門堂制度)’라는 용어를 통해 문(門)과 당(堂) 그리고 그 사이의 마당을 주요한 구성 요소로 가지는 중국 건축의 주요 성격을 설명한 바 있다. 이처럼 대체로 주요 건물을 두고 담으로 둘러싸인 원(院)마다 독립된 문을 두는 구성의 방법은 조선시대 건축의 사례에서도 흔히 살펴볼 수 있다.

43) 문헌자료 A의 4

44) 문헌자료 A의 4

45) 문헌자료 A의 16

46) 문헌자료 C의 23

47) 문헌자료 A의 6

48) 중국의 자전(字典) 『Shou-wen chieh-tzu(說文解字)』에는 아래와 같이 유(牖)를 벽을 뚫고 나무로 된 교창(交窓)이라 정의하고 있다.

[牖] 穿壁以木爲交窓也.

창(靈雙窓)이라는 점은 자료 A에서 유로 기록하고 있는 창호가 영쌍창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쌍창은 창문틀의 중앙에 수직으로 설주를 하나 더 세우고 좌우에 여단이 창문을 쌍으로 설치한 것으로, 도산서원 전교당, 경북 영천의 숭열당(崇烈堂), 강원도 강릉의 오죽헌(烏竹軒) 사랑채, 경북 월성 양동마을의 서백당(書百堂) 몸채와 관가정(觀稼亭) 모두 대청의 북벽에 영쌍창을 설치했던 조선중기 건물들의 사례들이다 (Kim, 1993).

분합은 동호독서당 내에서 가장 많은 곳에 사용되었다. 정당의 동남쪽에는 상방으로 통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남루에서 서쪽의 문루로 통하는 곳에도 이전의 벽을 허물고 설치되었다.⁴⁹⁾ 문회당의 전면에도 분합이 설치되어 날씨가 추울 때는 막고, 더울 때에는 들어 올려 철물(鈞)을 사용해 고정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⁵⁰⁾

남루의 서쪽은 석양이 무척 강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서쪽 처마에는 ‘자리(簾)’를 설치하여 석양을 가리는데 사용하였다.⁵¹⁾ 문회당의 정면 처마에는 자리를 그냥 설치한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짠 틀(機)에 넣어, 긴 장대(長竿)를 이용해 날씨에 따라 개·폐의 정도를 조절하여 비와 바람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였다.⁵²⁾ 조선 후기의 사례이고, 자리 대신 창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를 가리는 용도로는 사용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창덕궁 연경당의 선향재(善香齋)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작동이 가능한 차양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Figure 9).



Figure 9. Operational Awning of Seonhyangjae(善香齋) in Yeongyeongdang(延慶堂)

이 밖에도 <1570년 계획도>에는 여러 종류의 문이 묘사되어 있다. 비록 문헌에 기록되지 않아 정확한 명칭을 알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은 실물 자료가 부족한 16세기 후반의 건축적 장치들을 추적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16세기 후반의 동호독서당은 동시기의 문헌과 그림 자

료를 통해 조선 중기 건축의 물리적인 모습과 당대 사용자의 인식을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복원 추정안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문헌자료는 저자에 따라 건물의 명칭 및 규모에 차이가 있었고, 회화자료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었으며,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료 역시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추정한 복원안의 규모나 형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호독서당과 관련한 문헌 및 회화자료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건립과 변화 과정을 세밀히 살펴 기존의 추정 안을 보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조선중기 건축의 특징과 그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료가 가장 자세히 남아 있는 16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동호독서당의 새로운 복원 추정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마루로, 부속은 동쪽에서 두 번째 방에 온돌을 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추정하였다. 남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서쪽으로 행각으로 통하는 문루를 덧붙였으며, 행각은 문루를 포함하여 총 4칸의 규모로 단면과 함께 추정하였다. 문회당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규모에 양쪽에 각각 온돌방과 마루방을 둔 형식으로 추정하였다. 자료가 불충분한 허옥과 장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정이 불가하여 확정된 복원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16세기 후반 동호독서당의 건축적 특징들을 살피고, 개건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강학공간의 변화에는 온돌과 마루의 바닥형식 조합이 시도되었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온돌과 마루라는 각기 다른 바닥형식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 1517년에 건립된 정당은 별도의 방 구분 없이 모두 마루가 깔려있었던 반면, 1551년에 건립된 문회당은 양 편으로 별도의 방이 마련되면서 이 중 한 방에는 온돌이 설치되었다. 이처럼 온돌과 마루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사용되는 모습은 이후 서원 강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공간 평면형식의 전형이 된다.

둘째, 중심건물과 문을 중심으로 한 영역별 구성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551년 문회당을 건립한 이후 많은 노력을 들여 마당을 조성하여 담장을 두른 후, 문회당으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별도의 문을 만든 과정을 윤현의 「호당기」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중심 건물과 마당, 문으로 구성되는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당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6세기 후반에 사용되었던 많은 종류의 창호와 설비의 용어 및 설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동호독서당에는 실내 환경의 조절을 위해 위치와 필요에 따라 분합을 비롯한 창호, 개·폐 조절이 가능한 차양이 설치되었다.

16세기는 향촌에 서원이 보급되며 향교의 교육기능도 본격적으로 강화되어가는 시기로, 전국에 지어지던 서원을 바탕으로 강당의 형식이 완성되어가던 시기로 볼 수

49) 문헌자료 A의 6, 10

50) 문헌자료 A의 14

51) 문헌자료 A의 12

52) 문헌자료 A의 15

있다. 이 시기 동호독서당은 바로 이 변화의 과정을 동일한 시설 내에서 시간차를 두고 지어진 신·구당의 강당형식 비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이다.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동호독서당의 관리영역 중 일부분의 모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며, 창호 등의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복원하지 못하였다. 모두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REFERENCES

1.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4). 1531 Dokseodang Gyehoe-do(讀書堂契會圖).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April 1, 2015 from <http://encykorea.aks.ac.kr>
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5). 1570 Dokseodang Gyehoe-do(讀書堂契會圖). Retrieved April 1, 2015 from <http://www.cha.go.kr>
3. Jeon, B. & Kwon, Y. (2012). *Hanok and the History of Korean House*. Dongnyok Publication, 111~114.
4. Kim, I. (1993). A Study on Yong-sang Chang of houses in the 15th Century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9(9), 50.
5. Kim, J. (1997).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Baleon Publishing Co. 103~104.
6. Lee, J. (2015). Yun-Hyeon(尹鉉) and 16th-Century Dong-Ho Dokseodang(東湖讀書堂), *Han'guk Munhwa: Korean Culture*, 70, 123~160.
7. Lee, S. (1600s). Giseodang-gugi(記書堂舊基)
8. Shim, S. (1580s). *Literary Miscellany of Kyon-Han(遣閑雜錄)*
9. Yoon, H. (1550s). Hodang-gi(湖堂記)

문헌자료 A. 尹鉉, 『菊淵集』 卷上, 「湖堂記」 中

I. 選儒臣。賜暇讀書。蓋創於我世宗朝。而成宗癸卯歲。以龍山廢佛寺爲其所。未有名稱。壬子秋。因有建白。命繕其寺而堂之。賜扁讀書。內刻以出。燕山甲子。爲宮人所占。中廟初年。假寓於古淨業院。歲乙亥。卜基於東湖月松庵之西鬱營之。次年丁丑春功訖。閏四月出寓。皆載故事錄。而亦有徵諸老吏姓朴者

II. 嘉靖辛亥春。予與南甫尹甫韓甫沈甫金甫安甫聚議。以爲上房病於奧。南樓病於曠。察儕畢會。則房屋少而。病於分寓。蓋謀所以與而曠。宜四時爲常居之地。且分寓而不爲病者¹。近東南崖。有吏廳厨間。其高不甚危。其低不甚卑。視其位面陽。度其基可坐大屋。群議僉同。蓄力鳩工。且經且營。至秋初新堂成。八月馬廐成。新堂在正堂東階之下。由南樓往來不便。或以爲當爲行閣而通之。或以爲行閣則應高於舊牆。恐礙西室之坐眺。僚議不定²。予以爲行閣便。爲文而貼之壁。示諸僚而斷之。其文曰。南樓與新堂。距近而行遠。晴時則哿矣。雨雪則。實礙通行。上房欄干下。雖曰有路。矮簷觸頭。太妨閑蹠。不可不行閣而通之。度其地可排四間。附樓一間。稍長而高之。梯以上下。兼爲正門³。自正堂觀之。雖似少褊。曲其巒路而直陞于堂。亦不爲病⁴。餘三間差下。視舊牆低一尺。外設朱戟。中寬六尺。付之新堂簷下。視其址全石爲底。上實以土。用丈尺度之。去土至石。短柱小礎。兼作曲楸。只通人行。則可使下於舊牆三四尺。假令行閣之高。同於舊牆。

而舊房床。方且高之。眼界之豁。應倍前時⁵。況下於舊牆乎云。亦後兩論始一。其文至今在壁。越明年三月。行閣成。厥例依前所陳

III. 堂之正堂三間。其西北以板爲牖南虛之。其東少南。有分閣通于上房。正堂之東。附屋四間⁶。東廡第一間藏什物。第二間溫室。即所謂上房。第三間藏書。第四間近正堂者虛之。或有中使齋醮至。爲休息之所。自一二年來。掌編九續韻部群玉。啓請出文武樓書冊加藏之。爲房窄故。通兩間而列書架。有中使至則空其中。圍之屏而坐之。前楹有欄。塗赤土⁷。正堂與附屋之間。虛其半間。以通人行⁸。正堂之西近南有門。其下有房三間。其二間溫埃。一間板鋪。前有楹附之。有樓三間面南即所謂南樓也。埃房之內。在舊差低於板鋪。辛亥秋高之⁹。其內西北壁。貼小紙。錄東湖故事。今觀察關西洪甫所書。南樓之上當中北廡。懸大金字額。今觀察海西朴甫。在丁酉春。從事遠接。請書南樓二大字於華使龔用卿。揭諸壁上者。并圖書凸刻。樓東壁間有今長地曹趙甫所書唐詩六言四韻八分字。要通行閣。破壁而分閣。故今亡。樓西廡北向有分閣。其外有石梯三級¹⁰。堂址依岸。故由內觀之。樓之房甚夷。自休視之。其高有載。南有舊欄。只高一尺許。予病甚危也。前十年閣歲月失記。補其欄。退以高之。舟以文之¹¹。其西則夕陽穿射。故用簷補簷以遮之¹²。行閣之制。在右閣上。有門樓一間。由南樓通之以牖。新堂四間。前有退檻。其東溫室。其西涼房。皆有南北窓¹³。其中二間虛之。皆有北窓。南爲分閣。寒則障之。熱則鈞之。其鈞用鐵塗鐵其上¹⁴。外面有縣額曰文會。用兵衛森字凸刻傍之。文會之義遠矣哉。非專記新堂。且止錄其規制物色。故闕其義。前簷用木爲機。蓋以篋撐。撐以長竿。以防風雨。風雨則低之。晴則高之¹⁵。前有庭。長五六間。廣可三間。庭東岸缺。補築功鉅。數年來不克平治。籬以蔽之。今三月望。予謀諸吏。以積庭亂石。從平地遠築面高之。浸高浸進。及與庭平。蓋九層。事逸而功倍。庭夷而眼豁。似若增而廣焉。二十六日治庭¹⁶。且欲繚以短牆。西開一間門。以防偷盜。二十七日早。令輦土將築之。因而雨。且有他故寢工。東廡聯構虛屋。屬之上房之下。蓋三間爲廚爲門爲庫。其外長廊六間。爲吏廳爲外東門爲虛閣¹⁷...

문헌자료 B. 沈守慶, 『遑閑雜錄』 中

...讀書堂在豆毛浦北邊山椒。距京城七八里許。祖宗朝翹館儲才之意盛矣...중략...讀書堂舊有大廳及南樓。又有樓北寢房。壬子年間。堂僚鄭林塘惟吉。朴駱村忠元尹菊礪鉉金東園貴榮暨守慶。議構一堂於樓東。甚瀟灑。名曰文會。後三十餘年。堂員等又構新堂於樓西北池上¹⁸。尤極瀟灑...

문헌자료 C. 李植, 『澤堂先生別集卷之五』, 「記書堂舊基」 中

余再選賜暇。三叨主文。而以堂番夫復。假寓書籍於漢江。故尙未見書堂遺址。每歎焉。今者待罪湖上。偶逢書堂舊吏金國者。詢及故事。仍與往觀。從其指示而記之。以備後考焉。堂在山腰。距江可一牛鳴地。俯臨之若在戶下。溪出左右崖谷。凡四派。有巖有瀑。水不旱涸。山皆沙石剝赤。而舊則松翠覆之。舍北一土峯獨獨秀。上有松樹。名望湖亭。最占湖山之勝。不待贊也。正堂通計十二間¹⁹。右有西上房三間²⁰。前有樓三間。所謂南樓東也。左有東上房三間²¹。前有文會堂八間²²。有樓有房。地勢夷下。自東房俯視其宇。正堂與東房之間。有藏書閣二間。連棟而隔壁。其北有報漏室。室之北有測影臺²³。所以記時刻警讀課也。西偏牆外。緣巖逕而下。架石跨澗。引水爲蓮塘可數畝。有亭三間。北有三重階。種花木處也。西房牆內。有庖廚三間。東牆外。有馬廐三間。書吏房三間。大門一間²⁴。門下數十步。又引水爲蓮塘。上有小亭二間。以待外客也。此亭與庖廚吏房。則皆一間四楹。不比正堂諸房。樓有前後翼爲八楹。而礎石埋沒。不能點數...

(Received Apr. 2 2015 Revised May 21 2015 Accepted Feb. 19 2016)